

## 광주 전체 확진자 96%, 올 들어 감염...3월에만 10만명 ↑

올해 18만6308명 확진...3월에만 11만1300여명  
 사망자도 200명 돌파...검사 인원 400만명 넘어  
 광주시 “가정·직장·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엄수”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확진자의 98%가 올 들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과 함께 대면수업이 본격화된 3월에만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가정, 직장, 사교활동 시 생활방역을 간곡히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0년 2월 초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광주지역 누적확진자는 19만4426명에 이르렀다. 국내 전체 확진자의 2.7%에 이르는 수치다.  
 발생 원년 1098명이던 확진자는 이듬해인 2021년 7020명으로 6.4배 증가했고, 지난해 12

월 중순부터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폭증해 올 들어서만 18만63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난해 연간 확진자의 26배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월별로는 오미크론이 상륙한 지난해 12월 1804명이던 것이 올해 1월 7390명으로 늘더니 2월에는 6만7532명, 3월에는 11만1386명이나 확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도 11일 8954명, 12일 7193명, 13일 8339명을 기록한 데 이어 14일에는 1만1173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병 취약지대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았고, 신학기 개학과 함께 전면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20대 미만 학생층 환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0명 미만이던 누적 사망자도 어느덧 200명을 넘어섰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인원도 광주시민 전체 인구의 2.7배인 406만명에 이르렀다.  
 광주시는 ‘하루 1만명 확진’을 ‘감염병 위기’라고 판단하고,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남언 시민안전실장은 “확진자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 협조없이 방역당국과의

료진 만으로는 대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오미크론을 감기 수준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기저질환과 면역력 약한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과 감염위험을 낮추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정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 구성원 간 개인물품을 사용해 줄 것, 직장 내 대면회의와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 회의를 활용할 것, 각종 모임과 행사 등에서 인사할 때 악수를 삼가고, 목레인사 또는 주먹인사를 생활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언기자



“전쟁을 반대합니다” 15일 오전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야외광장에서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파란색 풍선과 전쟁반대 피켓을 들고 세계평화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오늘부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

확진자 급증 대비...정부 “50대 이하 치명률은 거의 0%”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자만 분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 기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을 하는 집중관리군과 나머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이다. 단 정부는 16일부터 집중관리군 지정 범위를 축소해 60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면역저자인 경우에

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 같은 기준 변경에 대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지정된다.  
 기동취재본부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오늘 광주 방문 “호남 없으면 민주당 없다” 감사·사과 대선 패배 후 첫 5·18민주묘지·비대위 회의·GGM 방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6일 호남을 방문한다.  
 대선 이후 허탈감에 빠져 있는 호남민들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는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날 오전 9시 묘지 참배 후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민주의 문 앞에서 제20대 대선에서 호남인들이 보여준 높은 지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비대위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지역에선 처음으로 비대위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들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통해 당 쇄신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생산 현장을 방문한다.  
 노사상생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GGM은 캐스퍼 누적생산 2만대를 돌파하며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민주당 비대위는 GGM 방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시조’ 추진 등 광주 청년일자리 창출 의지를 다지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가 오늘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지만, 내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회의를 한다”면서 “대선에 보여준 호남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열성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사과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계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총회 자유발언을 통해 대선 패배로 인한 호남 지역민의 상실감을 전하면서 “비대위 체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호남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결과로 가장 큰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바로 호남 지역민 여러분들이다. 국회의원들보다 더 큰 상실감에 시달리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비대위를 구성해서 바로 광주와 호남으로 내려가 지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야 한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재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